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새 노래로 예호와를 찬양하라”

2000년도 찬양대원 오늘·15일(수) 임명식 찬양대 총회는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2000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이 임명된다.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 찬양대는 오늘 I·II·III부 예배, 베들레헴 찬양대는 찬양예배

시 각각 임명을 받는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글로리아 중창단과 필그림중창단, 아멘관현악단도 임명을 받는다. 수요 I·II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호산나·

2000년도 찬양대원

지도 고경선 목사
서기 박두호 장로

위원장 이영기 장로
회계 성준경 장로

찬양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카니스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노문환	정동호	허희철	안진희	양경실
할렐루야찬양대	이영기	이태상	박정선	조은주	안진선·윤은숙
임마누엘찬양대	김상철	백수남	—	한현숙	백송희
베들레헴찬양대	성준경	신용식	임훈규	홍혜란	이현주
호산나찬양대	전정순	김순자	서희숙	홍혜란	—
시온찬양대	박두호	오형철	강민희	양경실	김지윤
필그림찬양대	정병무	임상현	유관승	—	—
글로리아찬양대	이영기	천정화	—	—	—
아멘관현악단	이영기	김복순	—	—	—

탈북난민보호 UN청원 대표단 파송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북난민보호 UN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 고등판무관실에 대표단을 파송하고 그동안 서명한 것을 제출하기로 했다.

제네바에 파송될 방문단원은 김상철, 나석호, 박근, 조안리 그리고 탈북자 1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까지 260만 명 국내외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동의를 얻은 서명용지와 탈북자 21490명을 인터뷰 한 내용을 13일부터 15일 사이에 UN에 호소하고 청원을 하게 된다.

시온찬양대는 11일(수) I·II부 예배 시에 각각 임명을 받게 된다.

찬양대는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8개의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 I·II·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수요 I·I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찬양예배를 담당한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 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한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리아 중창단은 기타, 크로마하프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목회자신학 세미나, 김치세미나 등 교회의 행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로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필그림중창단은 주일 오후의 찬양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새로 창단되는 아멘관현악단은 주일 I·II·III부 예배 현금시간과 월 1회 주일 찬양예배 시 기악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탄절 행사

■ 성탄축하찬양예배

19일(주일) 오후 5시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19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린다.

이날의 성탄축하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에서 주관한다.

■ 성탄축하잔치

24일(목) 오후 7시

성탄절 전야인 24일(금) 오후 7시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 연극과 성시 낭독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성탄절 감사예배

25일(금) 오전 5시, 9시, 11시

성탄절인 25일(토)에는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오전 9시와 11시에 감사예배를 드린다. 교회학교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날 예배 시 드리는 감사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새예배당 소식

건축공사 재개

지난 11월 15일부터 시공회사측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건축현장에 다시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6일(월) 현장을 방문하여 기도를 드린 신임권사들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의 벽돌을 쌓기 위한 비상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공사의 진척이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상기도회 요일별 주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요일	주력기관
월요일	당회원, 스데반회, 제 1·2권사회, 무지개회
화요일	당회원, 스데반회, 제 2권사회, 남선교회
수요일	당회원, 스데반회, 제 1권사회, 여전도회
목요일	당회원, 스데반회, 제 2권사회, 교회학교 교사
금요일	당회원, 스데반회, 제 1권사회, 찬양대원
토요일	당회원, 스데반회, 제 2권사회, 교구일꾼

이사야 강해

여호와의 승리

이사야 30장 27 ~ 33절

성도는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은 사탄 마귀이며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교회가 승리하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교회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1. 심판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방에서 연기를 일으키며 돌진해 오는 군대처럼 위엄 있게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앗수르를 치십니다(27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하늘만큼 먼 곳에서 오십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앗수르 장군 랍사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망의 신들과 비교하며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왕하 18장). 랍사개는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분을 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민을 괴롭히는 원수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발하실 더인데 번개와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장엄하고 위대하고 크고 놀랍습니다.

2.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① 그의 팔로 치칠 것이다(32절).

팔을 든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십니다(30절).

② 하나님의 호흡으로 심판하신다(시 18:15).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앗수르 군대는 지금까지 유다에게 목에까지 미치는 창일한 하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

나 하수가 아무리 많이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호흡하시면 다 물러갈 것입니다.

③ 멸망의 키로 훌어 멸하신다(28절).

앗수르군이 여러 백성으로 혼성되었으므로 멸방이라고 한 것이고 그들을 혼들어 작은 티끌같이 모두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앗수르는 날아갈 거에 불과합니다.

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기쁨으로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지극히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에 예정하신 봉등이로 매를 더하실 때 유다 민족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기뻐할 것입니다(32절). 유다 민족은 원수가 마지막 무저갱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불듯 하며 빠빠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찾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멸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봉등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사 30:27 ~ 33)



이종윤 목사

④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하나님은 앗수르군의 입에 재갈을 먹여 원하는 악을 행치 못하게 하시고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을 하므로 멸망으로 이끌립을 받게 됩니다.

⑤ 막대기와 봉등이로 치신다(31절).

여호와의 목소리가 막대기와 봉등이에게 명령하시므로 앗수르를 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대적할 수 없는 봉등이이며 이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3.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

앗수르는 하나님의 특소리에 낙담하나 유다는 기뻐할 것입니다. 마귀가 낙담하는 날은 성도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낙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낙담을 한다면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절기, 곧 유월절 전야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2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절기에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가는 것, 곧 예배

도에게는 구원받은 기쁨과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승리한 기쁨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형벌의 장소를 이미 깊고 넓게 예비하셨습니다(33절).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 힌놈 골짜기를 말합니다. 도벳은 사람을 불태워 몰렉신에게 바친 곳으로 산사람을 태우는 흥한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몰렉신을 위한 화장터가 이제는 앗수르 왕을 위해 준비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힘이고 끓임없이 불타게 합니다.

도벳에는 불과 많은 나무가 준비되어 저 옥 형벌처럼 불타게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죄인의 죄악은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불꽃에 들어갈 자는 거짓말하는 자와 음란한 자입니다. 그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앗수르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승리입니다. 이때 성도는 감사의 친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우리가 부를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친송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모두 감사의 친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순례길에서



천사의 손길

이영주(집사, 식당봉사)

올해도 우리 교회 옥탑층에 마련된 식당에서 맛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따스한 손길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분들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

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종으로 들으며 결약을 먼저 생각하고 솔선하여 실천하시는 모습 속에 한마음이 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광등 하나도 먼저 끄시는 성도들의 모습, 기름 절약을 위해 조금의 추위는 난로 대신 두꺼운 옷을 입는 것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열기로 추위를 녹이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도

와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지를 고민하시며 기쁘게 남의 짐을 나누어겨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기에 우리 식당은 늘 풍성한 교제가 넘쳐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선 살피시며 항상 성도들을 넉넉히 대접하고자 애쓰셨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다투어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자 하신 그와 같은 손길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름다운 손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 덕택에 올 해도 옥탑층은 비록 기름진 음식은 대접하지 못했지만 소찬을 앞에 놓고도 사랑이 쏟아지는 교제의 공간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더 많은 천사의 손길을 기대하며 올해의 인사를 대신 합니다. 천사의 손길이 되어 주신 분들께 주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 식당은 8일(수)과 9일(목) 김장을 하고 월동준비를 했다. 수고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햇동안 손
오
을 보자**
못한 회사의 승
용차를 수리했
다. 그런데 막상
차를 타려고 보
니 오른쪽 앞바

퀴 쪽에 붉은 색 오일이 꽤 많이 흘러 있었다.
당황하여 주위의 정비소를 찾아보니 시간이
늦어 다문을 닫았고 오일이 그만큼 새었으면
이미 엔진에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이라는 말
에 가까운 카센터에 차를 주차시킨 뒤 메모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주차해 두었던 카센터로 가서 어제
일어난 얘기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수리한 정
비소를 탓하며 차를 절견해 달라고 했다 차

를 살펴본 후 커센터의 직원은 차의 상태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며 어제 수리한 곳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으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
이라며 차의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

길동무를 만난듯한 기쁨

김세재(집사, 4교구)

였다.

나는 미심쩍은 부분들을 지적하며 좀더 자
세히 손을 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 청년은 직
접 차를 타보고 점검을 한 후 기름 묻은 얼굴
에 미소를 띠면서 어제 수리한 곳에서 순정부
품(가짜가 아닌 신품)을 써서 처음엔 약간 소
용이 나지만 제대로 수리해준다면 이상이 없다

는 것이다. 그는 수고비조차도 거절했다.

돌아오는 길에 친절한 그 청년의 얼굴을 떠
올려보며 '그는 예수를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바가지 씌우기 일쑤며 돈이 되지 않
는 손님이 오면 불친절한 것이 보통인데 경쟁
정비소에서 수리한 것을 칭찬하며 몸에 벤듯
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청년의 넉넉한 모습
에 비하니 웬지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
았다. 가까운 시일 나는 마실 것이라도 사들
고 가서 고맙다는 뜻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지
물어보고 만약 믿지 않는다면 전도도 하고 좋
은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

그를 만남으로 인해 하루 종일 즐거웠다.
그리고 나도 아침 헛빛 같은 얼굴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
이 아니겠다는 도전을 받았다.

점을 맞추고 하나가 될 때 생명력 있는 교회
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갈고 닦으신 학문을' 여타 목회자
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신 이종윤 목사
님을 비롯한 많은 강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명감에 불타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큰
비전과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배운 바를
활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민
족복음화를 위해 제가 서있는 곳에서 충성
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복음 사역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창의를 통해
또한 많은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배운 바를
잘 실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쁨입니다

배운대로 충성하렵니다

강대웅 목사(길릴리교회)

지난 11월 은혜 중에 목회자 세미나 16학
기를 마치게 된 것과 재 개인적으로는 네학
기를 수료하고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의 동문
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원장이신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모
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교회가 설
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 시작하여 이제 16학

기를 마치도록 일관되게 많은 수고를 하시
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하
여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섬겨 주
신 것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장로
님들의 섬김과 집사님들의 열정, 무엇보다
정성어린 음식들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권
사님들의 손길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처럼 한국 교회가
한 몸된 교회관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한
지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을 위해 힘을 합칠 때 삼천리 금수강산은 떠
지 않아 복음으로 하나님될 수 있으리라는 희
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예
수님의 지상명령인 생명 구원하는 일에 초

2000년도 위원회 조직

예배위원회

지도 이성득 목사
서기 신용식 집사

위원장 성준경 장로
회계 이관규 집사

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두호 장로
서기 오광환 집사

회계 오형철 집사

구분	부장	부서	담당	위원(남)	위원(여)
주일 I 부	유중관	안내	오민세	조철기 이동만 양재인	임경희 송숙영 이은자
		음향		김민철 권효진	
		현금	오성애	김원집 조원장	왕경애 전완순 왕경희 정수진 김규희 오환실 송미자
주일 II 부	신용식	안내	김중근	김시환 구동철 서창원	김미자 서희자 이기숙 김정임 유종숙
		음향		권오현 김민철	
		현금	강회자	이남성 장양일 홍한규 김종운 최재규	송향란 한진석 박은미 김영식 최양혜 남태순 여영숙 전행자 박창희 최재준 김차순 강명신 주정희 김명화
주일 III 부	이관규	안내	김규태	김광옥	금용숙 김현정
		음향		권오철	박영애
		현금	이순영	이계홍 김대웅	임순자 임윤자 황보추자 박미혜 임송자 이자혁 남영주 김은숙
찬양예배	이희주	안내			이자혁 임송자 김수호
		음향		김민철 권효진	
수요 I 부		안내			윤숙지 나기태
		음향			정현숙
수요 II 부	신용식	안내	김규태	장덕	금용숙
		음향	권오현		
성례부	최정자	강회자	김인순 남태순 박경희 박연순 손제겸 신동기 양우자 윤문자 여현진 이부자 이은희 이해순 전용순 정정숙 조상희 최정자 험은희 황노전		

새해 100교회 운동

후원자 신청 접수

전도위원회에서는 새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돋는 100교회 운동
후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개인이나
부서별로 올해에 결연한 교회
를 내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행정상의
확인을 위해 모두 재신청 해 줄 것
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일에 새
롭게 참여할 성도들의 신청도 기

다리고 있다. 문의는 사무국.

22일(수) 학습·세례식

을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22
일(수) I·II부 예배 시에 거행된
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2일(주
일),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9일(주
일) II부 예배 후 403호실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에 미참한 성도
들은 20일(월) 오후 7시 301호실
에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21일(화)

오후 7시 403호실에서 갖는다. 자
세한 문의는 새기족부.

* 이번 주 식사는 이상호 집사·
김차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
다.

* 신임 안수집사는 13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사 ■

* 정석균·김미선 집사, 가락동
으로(☎ 449-9613)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새로 임명받는 2000년도 찬양대원과 위원회 일꾼들을 위해
- 연말연시 교회 행사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오전 11시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